

Scaping

관성적인 신념만 남아 실제없는 '의미있음'을 찾아 떠도는 상태, 그 여정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는 것은 지독한 고립감과 막막함을 불러온다. 그래서 때로 '너도 그렇다'는 동질감에 숨고 싶기도 하고, '나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기대어 안도하기도 한다.

Scaping은 특정 정서와 연결되어 있는 시각요소들을 공간, 혹은 풍경으로 치환하는 작업이다. 절망, 외로움, 고립감과 같은 정서의 시각화에 관심을 두고 타인이 떠올리는 감정의 풍경을 채집하는 이 프로젝트는 나만의 풍경, 또는 누구나의 풍경, 어쩌면 모두의 풍경일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감' 하지만 줄힐 수 없는 '차이'. 그것을 확인하는 생각들의 채집과 축적의 과정은 나와 타인 사이에 이해의 끈을 연결하는 일종의 장치이며, 지속성을 잃어가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안의 행위이다.